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인수**

I. 머리말
II.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
III. 조선시대 왕릉의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왕족의 시신을 매장하는 거대한 무덤을 많이 축조하였는데 이 중에서 왕과 왕비의 무덤을 陵이라 하였다.¹ 조선시대 이전에도 왕릉은 만들어졌는데, 불교를 숭상하였던 신라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의 왕릉은 유교의 영향으로 禮制的의 의미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즉, 왕릉의 조성에서부터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古禮의 연장선상에서 설정된 엄격한 儀禮를 따랐으며, 왕실에서 준수하는 五禮 중에서 吉禮와 凶禮로 祭禮 및 喪葬禮에 대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32-G00014).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¹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능을 지칭할 때 王陵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山陵, 國陵, 陵寢 등으로 지칭했다. 이는 능이라는 것이 이미 왕의 무덤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만, 현재의 용례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왕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상세한 규범을 세우고 이에 의거하여 國葬을 치르고 각종 儀式을 시행했다. 왕릉의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초에 이미 고전적인 전통이 확립된 이래로 후대에 이를 지키며 따랐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왕릉은 오랜 시기를 지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단순한 외형과 간결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성과 지속성은 고례를 중시하는 유교 의례를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로서, 시대에 따라 크게 변모하기도 하는 여타 조형물과는 구별되는 왕릉의 독특한 성격이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그동안 풍수지리의 측면이나, 봉분 주위를 장식하는 석조물의 조각적 양식, 부속 건축물의 구조 및 배치, 전체 능역의 조경 원리 등에 주목하여 연구된 바 있지만, 정작 왕릉의 중심이 되는 封墳과 玄宮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² 이것은 조선 왕릉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유이지만, 한편으로는 조형 요소의 다양성과 양식상의 변화를 중시하는 그간의 미술사 방법론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왕릉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형상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변하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봉분의 위치나 석물을 크기처럼 세부에 있어서는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변동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의 外觀이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가 많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 明清代의 皇陵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법의 典據로 삼았던 중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조선 왕릉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왕릉의 상고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예제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중국 명청대의 황릉과 비교 검토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² 조선시대 왕릉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두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및 李貞善, 「조선전기 왕릉 石人, 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그중에서 미술사 방면의 연구는 대개 왕릉의 석물에 대한 것이며,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논문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장경희, 「고종황제 금곡 홍릉의 석조각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예경, 2007), pp. 509-536; 장경희, 「고종황제의 금곡 홍릉 연구」, 『史叢』64 (2007. 3), pp. 1-70; 金伊順, 「洪陵과 禧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 제21호(2007), pp. 293-328; 김은선, 「17세기 인·숙종기의 왕릉 조각」, 『講奎美術史』 31호(2008. 12), pp. 153-175; 김이순,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美術史學報』 31집(2008. 12), pp. 63-100;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 32권 제 1호(2009, 봄), pp. 155-190.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 왕릉의 가치를 검토한 다음 보고서가 있다. ICOMOS,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 학술 연구」(문화재청, 2007. 2).

II.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

1. 조선 왕릉의 명칭과 제도

조선시대를 걸쳐 왕과 왕비 및 추존 왕과 추존 왕비의 무덤을 陵이라 하였다. 각각의 능은 陵號를 붙였는데 太祖의 健元陵을 제외하고 모두 한 글자를 덧붙여 獻陵, 英陵, 洪陵 등으로 이름을 지었다(도1). 조선시대의 능은 모두 42개인데 역대 왕 및 추존 왕을 합한 숫자보다 많아진 것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별개의 왕릉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³ 반면 世祖와 貞熹王后의 光陵처럼 하나의 왕릉이라도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도 하다(도2). 그리고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合葬하기도 하고 한 장소에서 봉분을 따로 쓰기도 하며, 景陵처럼 세 봉분을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다(도3). 따라서 42개의 왕릉이라도 무덤의 개수 또는 봉분의 숫자로 따진다면 전체 수량은 달라진다. 게다가 조선시대의 왕릉은 遷葬을 자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능이 조성되었던 횡수는 현재 남아있는 능보다 더 많다.

조선시대에 왕릉을 정하는 기준은 피장자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신분이라는 것도 항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왕이나 왕비가 폐위되거나 복위되기도 했고 후대에 추존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의 무덤이 왕릉이 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⁴ 조형



도1 獻陵.
조선(『역사의 숲 조선왕릉』
p. 143)

³ 조선시대의 역대 왕릉의 현황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역사의 숲 조선왕릉』(늘와, 2007), p. 283의 '조선왕릉 일람표'를 참조.



도3 景陵, 조선 (『역사의 숲 조선왕릉』p. 65)

도2 光陵, 조선 (『역사의 숲 조선왕릉』p. 95)

적인 측면에서도 복위된 端宗의 莊陵이나 추존된 德宗의 敬陵처럼 왕릉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결국 피장자의 신분적 지위가 왕릉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조형적 형식은 때로 부차적인 것이었다.

능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경우 戰國時代 중기부터 사용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君王의 무덤을 칭하는 것이었다.⁵ 이후 秦漢을 거치면서 대개는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높여 부르는 용어가 되었고 諸侯王 이하의 무덤은 모두 墓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太王陵에서 발견된 벽돌 조각에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라는 글귀가 나타나고 있어 왕의 무덤을 능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백제에서도 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⁷ 신라에는 陵色典이라는 관청을 두어 역대 왕릉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

⁴ 燕山君의 생모 廢妃尹氏의 무덤은 懷陵으로 追封되었다가 다시 懷墓로 격하되었다. 『燕山君日記』 卷2 10年3月 24日(乙酉). 光海君의 생모 恭嬪 金氏의 무덤도 成陵으로 추존되었다가 격하되었다. 『光海君日記』 卷26 2年3月 29日(乙巳).

⁵ 楊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1985), pp. 12-13.

⁶ 김원용·안휘준 공저, 『한국미술의 역사』(사공사, 2003), p. 105.

⁷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지석에서는 “大墓”라고 칭하고 있다. 『百濟 斯麻王』(국립공주박물관, 2001), pp. 6-17.

정된다.⁸ 또한 『三國遺事』의 「王曆篇」과 『三國史記』에서도 신라 왕릉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다. 고려 때에는 각 임금의 무덤에 능호를 붙일 정도였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했으며, 天子의 무덤을 陵이라 하고 諸侯의 무덤을 墓라고 하여 구별했던 중국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후기에는 왕족의 무덤을 신분에 따라 陵 園 墓라 구분하였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 하고,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私親의 무덤을 원이라 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왕족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다.⁹ 그런데 원을 두는 제도는 원래 예제에 없는 것이었다. 1626년 仁祖가 친부모의 廟號로 원을 사용하려고 하자 우의정 申欽(1566-1628)이 원의 명칭은 중국에서도 이전에 능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이제는 쓰지 않으며,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대했다.¹⁰ 그래도 인조가 毓慶園과 興慶園으로 묘호를 정하려 하자 이번에는 대사간 張維(1587-1638) 등이 箚刺를 올려 천자의 무덤을 능 또는 원이라 하며, 제후와 왕의 무덤을 원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부터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칭했으니 예법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에서 능이라 칭한 것이 이미 제도화되었으니 이를 다시 고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원군의 무덤을 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¹¹ 이러한 신하들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이라는 새로운 무덤의 명칭이 생겼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園寢이라는 용어를 황제의 무덤인 陵寢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청대 順治帝(재위 1644-1661)때 비로소 제도적으로 능과 묘의 중간에 원을 설정하여 구분하였다.¹² 따라서 당시 조선 사대부들이 역대 중국과 한국의 능침제도에 대해서 예제의 차원에서는 상세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법에 어긋나는 조선의 園制는 尊王的 禮學을 내세우며 종묘 이외에 宮을 두어 일부 왕족의 神主를 모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宮園制를 성립시켜 사대부들의 墓나 祠堂보다 높은 격의 園과 宮을 중간에 설정함으로써 陵과 宗廟를 한층 더 높게 차별화시킨 것이다.¹³

⁸ 『三國史記』卷第39, 雜志 第8, 職官中 “陵色典大舍一人 史一人.”

⁹ 현재 조선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개가 남아있으며, 이 중에서 능은 42개, 원은 13개, 묘는 64개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역사의 숲 조선왕릉』, p. 10.

¹⁰ 『仁祖實錄』卷12 4年 3月 15日(戊午)

¹¹ 『仁祖實錄』卷12 4年 4月 3日(乙亥)

¹² 宋大川, 夏連保 『清代園寢制度研究 上冊』(文物出版社, 2007), pp. 146-152.

¹³ 鄭景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호(2004), pp. 157-193 및 정경희, 「조선 후기 園所都監儀軌의 특징」,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p. 85-94.

조선시대 초기의 국장과 산릉 조성에 대한 제도는 고려의 것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예제의 측면에서 고려의 『詳定古今禮文』같은 것을 참조했을 터인데 그 내용이 일부 담겨있는 『高麗史』 「志」의 五禮에 대한 내용에는 왕릉의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1396년 조선 최초의 왕릉으로 神德王后의 貞陵을 조성할 때와 1408년 태조의 건원릉 조성 및 1412년 定宗의 왕비 定安王后의 厚陵을 조성할 때까지는 고려의 예를 따라 4都監 13所를 설치하여 국장을 치렀다. 1410년 儀禮詳定所를 설치하여 古禮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세종대에 각종 상장례 의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唐 杜佑의 『杜氏通典』, 宋 朱熹의 『家禮』, 주희의 제자였던 黃幹이 완성한 『儀禮經傳通解』 그리고 송대의 『文獻通考』 등을 참조하였다.¹⁵ 특히 『杜氏通典』에는 당대 황제의 送終 의례에 대한 『唐元陵義註』가 수록되어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¹⁶ 실제로 『國朝五禮儀』의 서문에서 이 책을 전범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唐太宗昭陵圖〉같은 그림까지 참조하는 등,¹⁷ 대체로 당송대의 古制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¹⁸ 즉 ‘時王之制’라고 중요시되었던 『洪武禮制』 등의 명의 제도를 ‘州縣의 體制’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제후국으로서의 명분에 부합하는 예제를 독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¹⁹ 이렇게 상장례를 개혁한 결과 1420년 太宗의 왕비 元敬王后의 獻陵을 조성할 때는 고려의 유습에서 벗어나 國葬, 殯殿, 山陵의 3도감 체제로 변화하였으며,²⁰ 능 옆에 세우던 願利를 폐지하였고,²¹ 각종 불교 의식을 혁파하였다.²²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世宗實錄』의 「五禮」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산릉을 조성하는 절차와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²³ 이 내용은 成宗때 완성된 『國朝五禮儀』에서 거의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며,²⁴ 이후 조

14 조선 초기에 고려의 왕릉을 제도적으로 계승한 측면에 대해서는 李貞善 앞의 논문, pp. 34-48 참조.

15 『世宗實錄』 卷6 元年 12月 20日(庚寅) 및 『世宗實錄』 卷43 11年 2月 10日(丙戌).

16 『大唐開元禮』의 흥례에는 황제의 중종 의례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杜氏通典』에는 게재되어 있다. 來村多加史, 『唐代皇帝陵の研究』(學生社, 2001), pp. 250-253.

17 『世宗實錄』 卷61 15年 7月 22日(癸酉). 〈唐昭陵圖〉는 元代 李好文的 『長安志圖』에 수록되어 있다. 來村多加史, 위의 책, p. 32.

18 이정 선은 조선 초기 왕릉의 석물 제도가 주로 송의 제도를 참조하여 정비되었고 그 근거로 청대에 편찬된 『宋會要輯稿』의 내용을 들고 있다. 李貞善 위의 논문, pp. 44-46. 그러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9 여기에는 명나라의 전체적 군주정치를 비판하는 許稱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했다. 강문식, 「태종 세종대 許稱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호(2008), pp. 111-139.

20 『世宗實錄』 卷8 2年 7月 19日(乙酉).

21 『世宗實錄』 卷8 2年 7月 11日(丁丑), 8月 17日(癸丑).

22 『世宗實錄』 卷8 2年 9月 16日(辛巳) “國俗 凡喪事 嘗用佛家之儀 至是盡革之 一從古禮.”

23 『世宗實錄』 卷134, 五禮, 凶禮儀式, 治葬 항목 참조.

선 왕릉의 제도적 典據가 되어 계승되었다. 英祖 때에는 그 사이에 상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1744년에 『國朝續五禮義』를, 1752년에 『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의 유습을 점차 탈피하여 중국 당송시대의 고제를 근간으로 삼으면서 독자적인 전통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명대의 제도를 참조하면서도²⁵ 이미 정립된 제도와 관습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것이 ‘變禮’로 우려되기도 하였지만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상세하다고 자부되기도 하였다.²⁶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각종 세부 사안을 놓고서는 종종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릉은 명청대 황릉과는 예제 면에서 깊은 관련이 없이 조성되었다.

2. 조선 왕릉의 형식

조선 초기의 왕릉은 형식면에서 기본적으로 고려의 왕릉을 계승하고 있다. 같은 쌍분 형식인 고려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玄正陵을 定宗과 定安王后의 厚陵과 비교하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도 4, 5).²⁷ 산을 배경으로 구릉에 반구형에 가까운 봉분을 만들고 주변에 석물을 배치하며 봉분의 앞쪽 평지에 丁字閣을 세우는 것이 동일하다. 또한 文武石人 등의 석물 구성과 單室의 묘실을 만드는 것도 대체로 같다.²⁸ 최초의 조선 왕릉인 신덕왕후의 貞陵은 실제로 玄正陵 조성에 참여했었던 金師幸(?-1398)이 주도하였다.²⁹ 이때 실무를 담당했던 朴子清(1357-1423)은 1407년에 신의왕후의 齊陵을 왕릉의 규모로 확장할 때 참여하였고, 1408년에 태조의 건원릉과 1420년 태종비 원경왕후의 현릉을 만들 때도 다시 관여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통하여 조선 초기의 왕릉은 고려의 왕릉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두 왕조의 교체가 커다란 격변없이 이루어진 만큼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연속성이 강했다

²⁴ 『國朝五禮義』卷7, 凶禮, 治葬(영인본: 民昌文化社, 1994).

²⁵ 조선 초기에는 『洪武禮制』를 참조하다가 중종대에 『大明會典』을 입수하여 이를 참조하였다. 『太宗實錄』卷31 16年6月27日(丁亥) 및 『中宗實錄』卷36 14年7月26日(丁巳).

²⁶ 1565년 문정왕후의 발인 시에 임금이 병환으로 의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史官의 논평에서 이러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明宗實錄』卷31 20年7月13日(丁未) “蓋我朝喪禮 雖不盡合三代之制 若比中國 則頗詳密 漢高以來 所未有也.”

²⁷ 후릉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보고 싶은 왕릉과 그기득: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를 참조.

²⁸ 개성 지역에 분포한 고려시대 왕릉 중에서 17개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김인철, 『고려무덤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2002; 백산자료원, 2003 재출간).

²⁹ 林玲愛,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講臺美術史』17호(2001), pp. 47-75.

는 사실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릉의 전범이 되는 고려의 왕릉은 다시 신라 왕릉을 계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연원은 신라까지 올라가게 된다.³⁰ 신라 초기 4세기에서 6세기 중엽의 왕릉은 天馬冢이나 皇南大冢처럼 積石木槨墳 형식의 대형 분묘인데 봉분 높이 20미터에 바닥지름 80미터 정도이다. 이들 왕릉은 주로 평지에 축조하고 묘실에서 화려한 부장품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후 600년경을 전후하여 신라의 왕릉은 石室墓 형식으로 변하고 규모도 작아지며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 신라 왕릉으로 전해지는 경우 대략 높이 5-8미터에 봉토의 평면지름이 15-20미터이며, 봉토자락에 護石이 둘러쳐진 경우 높이 6미터에 바닥지름 20미터 정도가 된다.³¹ 통일신라 시기의 왕릉 중에는 호석에 十二支神像을 부조로 조각하거나 독립된 조각으로 만들어 세워 놓은 것이 있어 특이하며,³² 봉분 앞의 床石을 배치하여 고려와 조선의 왕릉까지 계속되는 “한국식 왕릉 형식의 시작”이기도 하다.³³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기 왕릉이 唐制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것의 근거는 대개 무덤 앞의 석물을 세우는 것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무덤의 입지, 봉분의 형태, 묘실의 구조 등에서는 唐陵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계승된 통일신라 시기의 왕릉이 당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³⁴ 중국의 경우 진한대에 초대형 분묘가 등장하는 배경은 신분상의 등급제도가 형성되면서 분묘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했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부장품 수량이 많아지면서 棺槨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봉분도 대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초기에 대형 분묘가 조성되다가 점차 규모가 작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고려 왕릉은 주로 남면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석실묘이고 봉토 하단에는 십이지신상을 새긴 판석을 호석으로 돌렸다. 봉분 앞에는 石床과 한 쌍의 望柱石이 있다. 그 앞으로는 長明燈, 文石人, 武石人이 한 쌍씩 배치되고 무덤 둘레에는 石獅子, 石羊, 石虎를 배치하기도 한다. 玄室은 높이 2미터에 한 변이 3미터 정도의 석실로 표면에 회칠을 하고 四神圖나

³⁰ 김원용·안휘준 공저, 앞의 책, pp. 228-231 및 334-340.

³¹ 이 수치는 문화재안내문판에 기재된 것에 의거한다. 김환대, 『신라왕릉』(한국학술정보, 2007), pp. 139-169.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사적 항목에서 제공하는 수치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³² 姜友邦, 「新羅 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佛敎美術』1집(1973) 및 「統一新羅 十二支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154・155호(1982); 『圓融과 調和』(열화당, 1990), pp. 317-355 및 356-381에 계수됨.

³³ 김원용·안휘준 공저, 앞의 책, pp. 338-340.

³⁴ 이미 고유섭은 신라 왕릉에서 唐制와 고유한 특성이 함께 섞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대원사, 1999), pp. 95-98.

십이지신상을 그리기도 하였다.³⁵ 통일신라 석실분을 대체로 계승한 것이며 같은 시기의 宋遼 金 등의 중국 묘제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왕릉의 형식이 이후 고려 왕릉에 영향을 끼치고 조선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조선 초기의 왕릉 형식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조선 말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묘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릉 형식을 바꿀만한 중요한 계기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굳이 가정해 본다면 여러 계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던 시기인 세종대에 새로운 묘제가 나타날 수 있었으며, 임진왜란으로 宣陵과 靖陵이 파헤쳐진 후,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명분상으로 왕릉 형식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한 1600년 선조비 懿仁王后가 승하했을 때 裕陵을 축조하면서 참고할 이전의 儀軌나 冊錄이 없어서 산릉 역사에 어려움이 컸다.³⁶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과거를 그대로 지키려 했다. 단지 조선왕조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왕에서 황제로 신분이 격상됨과 더불어 새로운 형식이 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왕조가 유지되는 동안 능의 형식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되며 창업주를 비롯한 선왕의 유지를 존중하는 유교적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500년이란 긴 세월동안 존속했던 조선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 왕릉은 전시기에 걸쳐서 형식면에서 중국 명청대의 황릉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III. 조선시대 왕릉의 특징

1. 능지와 능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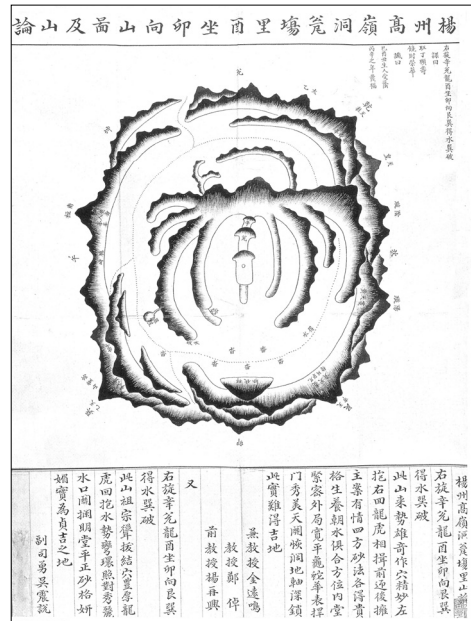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새로 즉위한 임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선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산릉의 조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었다. 검박과 절제라는 유교적 명분과 살아생전과 다름없이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윤리가 서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는 왕실

35 고려의 왕릉에 대해서는 김원용·안휘준 공저, 앞의 책, pp. 441-443;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2003);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高麗王陵: 嘉陵, 坤陵, 陵內里石室墳』(2007); 장경희, 『고려왕릉』(예맥, 2008) 그리고 朝鮮總督府 編, 『大正5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1917; 國書刊行會, 1964 復刻本)의 「高麗諸陵調査報告」, pp. 261-555 참조.

36 『宣祖實錄』 卷129 33年 7月 26日(丁卯) “(李) 王福日亂後儀軌冊錄皆無存者 只據聞見爲之.”

의 혈연적 조상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공적 존재인 군왕의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조선시대 왕릉의 위치는 주변 산세, 다른 능역과의 거리, 접근성,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도성인 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하였다. 왕릉은 풍수에 따라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세를 이루고 앞쪽으로 물이 흐르며 앞에는 案山이, 멀리는 朝山이 보이는 吉地를 잡았다. 陵地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圖讖書를 참조하였고 觀象監 소속의 관원과 전문 堪輿家가 참여했다.³⁷ 택지를 하는 과정에서 山圖를 그려 활용하였는데 산세, 혈자리, 방위 등을 표시한 풍수지도의 형식을 보여준다(도 6).³⁸ 그러나 풍수라는 것이 체계적이고 엄밀한 것이 아니라서 많은 경우 논란이 되었다. 어떤 경우는 지정보다는 도성과의 거리, 침수 피해 가능성, 뱀 같은 잡물의 방지, 세도가 문중의 무덤 유무 등 현실적인 요건이 풍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적절한 吉地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천장을 몇 번 치룬 후에 산릉의 선택이 좁더 까다로워졌다. 더욱이 정치적 분쟁과 연관되면서 능지 선정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³⁹ 그런데 조선 왕릉 분포지의 지질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주로 호상편마암과 화강암 지형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 분포하고, 전체의 70%가 남향으로 포함된다.⁴⁰ 따라서 풍수에 의거하여 능지를 선택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자연적 입지에 왕릉이 위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명대의 황릉이 풍수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중국의 풍수가 다르다는



도 6 <묘소도형여산론>, 1718년, 종이에 수묵, 79.3×59.2cm, 장서각 『한국의 옛지도』 p. 360

³⁷ 예를 들어 『世宗實錄』 卷49 12年 7月 7日(乙巳)에 여러 풍수관련 문헌이 언급되어 있다.

³⁸ 이에성, 「조선 후기의 왕릉도(王陵圖)」,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pp. 205-234.

³⁹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에 능을 쓰는 것을 놓고 왕권과 신권, 노론과 소론 간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희중, 「17, 1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제7호 (2001), pp. 1-55.

⁴⁰ 장은미·박경,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위성영상분석과 지질, 지형분석의 방법론」, 『한국GIS학회지』 제14권 제호(2006. 11), pp. 285-297.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직후 의인왕후 裕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란으로 과거의 문서가 산일된 데다가 중국의 풍수를 도입하려는 宣祖의 의도까지 겹쳐져서 대신들 간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것은 전란 중에 일부 왕릉이 훼손된 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기도 했는데, 능지를 놓고 결론을 얻지 못하자 영의정 李恒福은 조선에서 준수하던 풍수가 올바른 것이고 중국의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¹ 이때 선조는 명의 황릉처럼 大山을 얻어 한 곳에 왕릉을 모으고자 했으며, 고려 또한 일정한 장소에 왕릉을 만들었음을 강조했다.⁴² 이렇게 族墳 형태의 군집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풍수를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중국의 경우 송대와 명청대 황릉은 의도적으로 한 지역에 모여져 있다. 북송의 황릉은 東京이었던 開封에서 약 122킬로미터, 西京이었던 洛陽에서 약 5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河南省鞏義 지역에 8개의 능이 모여 있다.⁴³ 명대 황릉은 南京의 孝陵을 제외하고는 北京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昌平의 天壽山 아래에 위치한 明十三陵으로 밀집되어 있다.⁴⁴ 청대의 황릉은 북경에 入關한 후에는 清東陵과 清西陵에 모여있다. 청동릉은 북경에서 약 125킬로미터 떨어진 河北省遵化的 馬蘭峪에 있으며 다섯 황제의 능과 황후 및 비빈들의 무덤이 있다. 청서릉은 북경에서 약 130킬로미터 떨어진 河北省易縣에 자리 잡고 있으며 네 황제의 능이 있다.⁴⁵

조선의 경우 결과적으로 東九陵과 西五陵이 생겨났지만 원래부터 명청대의 황릉처럼 군집묘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태조는 즉위 직후부터 자신이 묻힐 壽陵의 터를 찾았다. 후대의 숙설처럼 無學大師가 능터를 점지한 것은 아니었고,⁴⁶ 여러 곳을 두루 물색하던 중 마침내 도성 내의 聚賢坊을 능지로 정하여 신덕왕후의 貞陵을 이곳에 만들고 자신의 壽陵으로 준

⁴¹ 『宣祖實錄』卷130 33年 10月 9日(己卯) “而我國自來遵用之法亦有定式 今以我國之規觀之 則穴道不正.”

⁴² 『宣祖實錄』卷127 33年 7月 26日(丁卯).

⁴³ 이곳의 왕릉은 宣祖 永安陵, 太祖 永昌陵, 太宗 永熙陵, 眞宗 永定陵, 仁宗 永昭陵, 英宗 永厚陵, 神宗 永裕陵, 哲宗 永泰陵이다. 陳朝云, 『南北宋陵』(中國青年出版社, 2004).

⁴⁴ 楊道明, 『中國陵墓建築概論』,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建築藝術編 2: 陵墓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1), p. 12-14 및 王其亨, 『明代陵墓建築藝術概論』, 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建築藝術全集 第7卷 明代陵墓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0), pp. 2-43.

⁴⁵ 晏子有, 『清東西陵』(中國青年出版社, 2000). 清東陵에는 順治帝의 孝陵, 康熙帝의 景陵, 乾隆帝의 裕陵, 咸豐帝의 定陵, 同治帝의 惠陵이 있고, 清西陵에는 雍正帝의 泰陵, 嘉慶帝의 昌陵, 道光帝의 慕陵, 光緒帝의 崇陵이 있다.

⁴⁶ 『宣祖實錄』卷131 33年 11月 9日(己酉), 『顯宗實錄』卷1 卽位年 7月 2日(辛酉), 『肅宗實錄』卷14 9年 3月 25日(丁卯) 등의 기사에 따르면 李恒福, 李時白, 宋時烈 같은 대신들이 숙설을 따라 태조 건원릉을 무학대사가 선지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비하였다.⁴⁷ 그러나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영의정부사 河崙 등으로 하여금 새로 능지를 찾도록 하여 楊州의 儉巖으로 정하였다.⁴⁸ 이미 가까운 도성 내에 수릉터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능지를 새로 정한 이유는 조선 초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암투와 연관이 있다. 태종은 건원릉 조영을 전후하여 자신의 생모이자 태조의 원비인 신의황후의 齊陵을 새로 정비한 반면,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였던 계비 신덕왕후의 貞陵은 도성 밖으로 遷葬하였다.⁴⁹ 이렇게 墓主의 뜻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태조의 건원릉은 이후 주변에 계속하여 왕릉이 조성되어 현재의 동구릉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곳에 후대 왕들의 능을 함께 만들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예견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宣祖가 효율적인 왕릉의 관리와 보호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왕릉터를 찾으려 했지만 이 역시 뜻대로 이루지는 못했다.

명청대 황릉과 비교하여 조선 왕릉의 능지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천장을 많이 하였다는 점이다.⁵⁰ 십여 기 이상의 왕릉이 천장을 하였는데 주로 玄宮에 물이 차거나 봉분이 무너져 내리는 등 왕릉이 훼손된 경우였지만, 坡州에 있던 仁祖 長陵의 경우 뱀이 자주 나오므로 불길하다고 하여 交河로 천장하였다.⁵¹ 조선시대에 이렇게 왕릉의 천장을 자주 하였던 이유는 풍수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봉분 구조의 취약함을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장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 황릉과 비교해 볼 때 능의 규모, 묘실의 구조, 천장하는 거리 등에서 비교적 왕릉의 천장이 용이하였다.

조선시대 왕릉의 규모는 일반 백성은 물론 사대부의 무덤과 비교하여 차이를 두었다. 조선 초기 분묘 면적에 대해서는 1485년에 반포된 『經國大典』에서 성문화하였지만,⁵² 여기에 왕릉에 대한 步數法은 별도로 없었기에, 중국 한대의 황릉을 기준으로 반감하여 사방 161보로 정하였다.⁵³ 이것은 단지 능원면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산불을 막기 위해 설정한 火巢의 경계까지를 포함한다면 매우 넓은 면적이 된다. 조선시대 왕릉 구역은 나무를 베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지만, 중국과 달리 능역에 별도의 담장은 없었다. 그리고 중국처럼

47 『太祖實錄』 卷10 5年8月23日(戊申).

48 『太宗實錄』 卷15 8年6月12日(己丑) 및 6月28日(乙巳).

49 『太宗實錄』 卷15 8年3月10日(己未) 및 卷17 9年2月23日(丙申).

50 명대의 황릉은 천장이 없었고 청대 慕陵의 경우 청동릉에 수릉으로 만들었다가 침수로 청서릉으로 옮겼다. 모릉의 이권에 대해서는 王其亨, 『慕陵擬建方城明樓史實探蹟』, 『故宮博物院院刊』 總第129期(2007年 第1期), pp. 6-13를 참조.

51 『英祖實錄』 卷29 7年3月16日(己卯), 3月19日(壬午), 및 5月14日(丙子).

52 『經國大典』 卷9 禮典 喪葬.

53 『太宗實錄』 卷12 6年11月1日(丁巳).

능을 관리하는 촌락인 陵邑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조선시대 왕릉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없었기에 수시로 백성들이 들어와 뉘갸를 구해가는 일이 발생하여 능참봉이 왕릉을 지키느라 고생하기도 하였다.⁵⁴

2. 능제와 건축

한국의 왕릉 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로 대비된다. 중국 역대 능침제도는 지속과 변화가 반복되었다. 春秋戰國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분묘가 등장하고 秦漢의 황릉에는 대규모 厚葬이 성행하면서 봉분의 형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잘라낸 듯한 소위 覆斗形이다. 이후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치면서 도굴을 우려하여 薄葬이 유행하는 쇠퇴기가 된다. 唐宋대에 다시 한대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대형 왕릉을 부흥시킨다. 당의 황릉은 산을 이용하여 거대한 봉분을 삼았고, 신도에 石像을 배열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송대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평지에 능을 축조했다. 그러나 원대에는 봉분도 없고 지하 현궁도 없는 秘葬을 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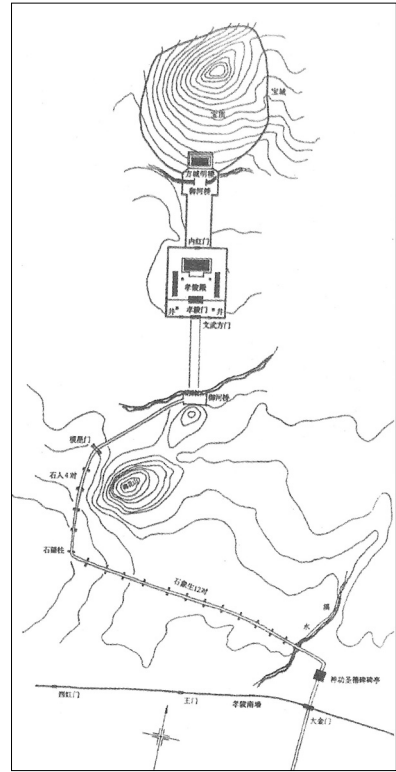
도7 健元陵, 조선 (『역사의숲 조선왕릉』p. 21)

조선 왕릉의 기본 구성은 錦川橋와 紅箭門을 지나 神道를 따라 가면 丁字閣이 있고 그 옆에 碑閣이 놓이며 정자각 뒤로 陵丘가 있다. 부속 건물로 관원들이 머무는 守僕房과 제물 준비를 위한 水刺房, 그리고 왕릉 관리와 제사 준비를 위한 齋室이 설치된다(도7). 이러한 조선 왕릉과 직

⁵⁴ 김경숙, 「18세기 陵參奉 金斗璧의 관직생활과 王陵守護 - 『稗聞日記』를 중심으로, 『奎章閣』 28(2005. 12), pp. 109-135.

⁵⁵ 이를 楊寬은 중국 황릉의 변천을 성립기, 쇠퇴기, 부흥기, 변형기, 개혁기로 구분하고 있다. 楊寬, 앞의 책 참조.

접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명대와 청대의 황릉이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명대 황릉을 시작하는 것은 南京의 孝陵이다(도8). 효릉은 태조 연간 명나라의 典章制度가 확립되는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전의 능묘는 도성을 모방하여 방형 봉분이 마치 도성의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배치이다. 그러나 효릉은 前方後圓 형태이며, 봉분은 陵園의 가장 북쪽 끝에 있다. 廡殿은 황궁의 正殿을 모방하여 세웠으며 봉분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아졌다. 둘째로 봉분에 寶頂이라는 형식이 나타나면서 평면이 방형에서 원형으로 변했는데, 이는 양자강 유역에는 방형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寢殿없이 廡殿만 세운 것이다. 당송의 황릉은 下宮 즉 寢宮이 있지만 명초에는 황궁 내에 奉先殿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넷째로 당송 황릉의 神道는 직선인데 효릉은 산세를 따라 구부러져 있다.⁵⁶ 이러한 특징은 이후 청대에도 계승되므로 명 효릉으로부터 중국의 능침제도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모하는 개혁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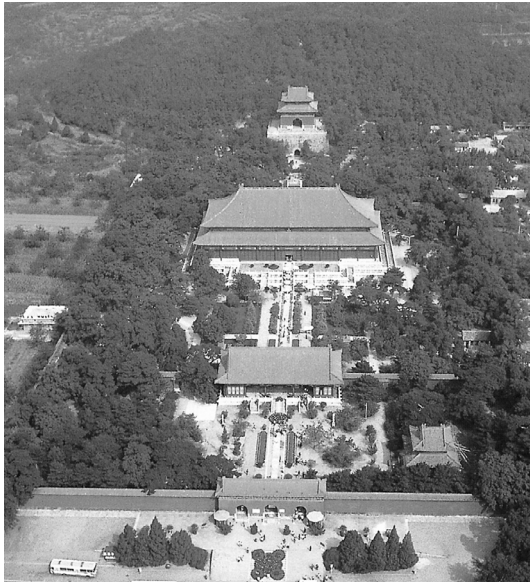


도8 明孝陵 평면도
(胡漢生, 『圖說明朝帝王陵』,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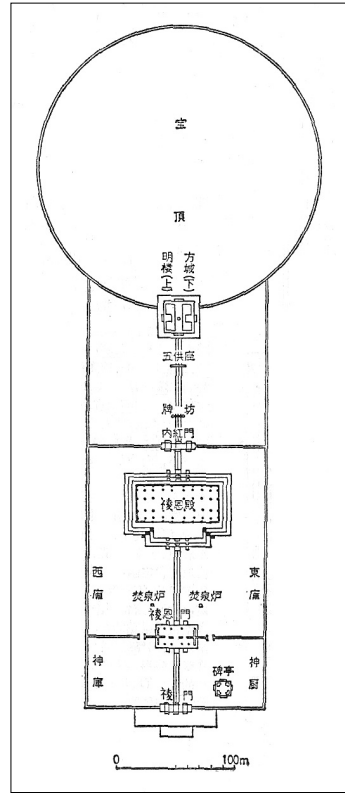
한편 1407년 永樂帝는 북경의 昌平에 길지를 찾아 이를 天壽山이라 하였고, 1413년 황후를 長陵에 묻고 1424년에 영락제를 함장하였다. 이후 약 100여 년에 걸쳐서 후대 황제들은 석물을 보충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石碑坊을 세워 長陵을 중심으로 明十三陵의 면모를 갖추었다.⁵⁷ 능의 입구에는 약 12미터 높이의 石碑坊이 서있고, 뒤로는 약 6킬로미터의 神道가 이어지며 그 끝에 大獻門이 있다. 이를 지나면 碑亭이 있고 여기서 龍鳳門에 이르는 신도 양 쪽에는 12쌍의 石獸와 6쌍의 石人이 배열되어 있다.⁵⁸ 明十三陵의 능제는 모두 유사하다.⁵⁹

⁵⁶ 劉毅, 『明代帝王陵墓制度研究』(人民出版社, 2006), pp. 70-80.

⁵⁷ 長陵의 조성은 왕위를 찬탈한 永樂帝의 정통성 강화와 그 뒤를 이은 宣德帝의 정치적 계보 확립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Cheng-hua Wang, "Material Culture and Emperorship: The Shaping of Imperial Roles at the Court of Xuanzong (r. 1426-35)," Ph. D. diss. Yale University (1998), pp. 46-58.



도9 長陵, 명 (胡漢生編, 『十三陵』, p. 11)



도10 明長陵 평면도
(楊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 p. 63)

정문에 해당하는 陵門이 있으며, 그 안쪽에는 稜恩門과 중심 건물인 稜恩殿이 있다. 그 뒤로는 능침 구역으로 통하는 內紅門과 石五供이 놓여 있다. 안쪽에는 方城明樓가 높게 서있으며, 그 뒤에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싼 寶頂이 있다(도9, 10).

청대 황릉은 기본적으로 명대 황릉을 답습하고 계승하였다. 차이점은 寶頂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황후의 능을 따로 만들었으며 능에 따라 별도의 神道를 만들어 석상을 세우기도 하였다. 청대 황릉의 주전은 隆恩殿이라 칭하였다(도11, 1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명청대 황릉은 이전과 달리 장대한 규모와 복잡한 건축물로 현실의 황궁을 모방하여 조성하였고 시신이 안치된 봉분보다는 의례가 행해지는 헌전을 중요

⁵⁸ 劉殿, 위의 책, pp. 80-106.

⁵⁹ 물론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기도 하다. 明世宗의 경우 藩王 신분으로 대통을 이어 정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신의 永陵을 건조하면서 다른 능보다는 웅장하게 하여 長陵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王麗梅, 「朱厚熜帝系獨立意識在陵寢建造中的反映」, 『故宮博物院院刊』 總第129期(2007年 第1期), pp. 14-23.

르는 고려 그리고 명청의 예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소위 '同原異岡'의 시초가 되는 光陵의 경우 1468년 세조의 능 세워진 후 1483년 정희왕후가 사망하자 그 무덤을 광릉의 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만들었다.⁶¹ 능호를 정할 때 중국 宋仁宗과 慈聖皇后的 永昭陵의 예를 참고하여 별도의 능호를 새로 쓰지 않고 이미 조성되었던 광릉으로 함께 칭하기로 하였으며,⁶² 丁字閣도 별도로 다시 세우지 않고 두 무덤의 중간으로 옮겼다. 정자각을 하나로 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⁶³ 이는 제례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지 조형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봉분 배치 형식의 차이는 시기적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때그때 마다의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왕과 왕비 중 누가 먼저 승하하는가, 능역의 넓이는 충분한가, 원비와 계비 중 누가 더 배장에 합당한가, 그리고 당시의 당파적 관심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봉분 형식이 이렇게 불규칙한 이유는 壽陵을 미리 정하지 않고 매번 왕릉을 조성할 때 마다 새롭게 능지를 찾았기 때문에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많았던 탓도 있다.⁶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봉분 형식의 다양성은 전체 왕릉의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소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논쟁이 벌어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능지가 제대로 결정되고 왕릉의 기본 구성이 갖추어 진다면 봉분의 형식은 더 이상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봉분 크기 역시 두 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였기에, 정확한 제도를 상고하기도 했다.⁶⁵ 『國朝五禮儀』에는 壙은 길이 10척, 폭 29척, 길이 25척 5촌이고, 봉분의 높이는 滿石으로부터 12척 5촌에 欄干 12면의 둘레가 183척 6촌이라고 정해져 있다.⁶⁶ 최근 실측 자료에 따르면 조선 초기인 15세기 왕릉 중에서 병풍석이 있는 경우 봉토 높이가 5미터 내외이고 바닥 지름이 10.5미터 정도이다. 병풍석이 없는 경우는 봉토 높이 3.5미터 내외에 바닥 지름이 12미터 정도이다.⁶⁷ 이는 후대의 기록에서 봉토 圓徑이 30-35척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⁶¹ 『成宗實錄』 卷153, 14年 4月 9日(辛未).

⁶² 『成宗實錄』 卷153, 14年 5月 1日(壬辰).

⁶³ 『成宗實錄』 卷153, 14年 4月 26日(戊子), 4月 27日(己丑) 및 5月 27日(戊午).

⁶⁴ 조선 초의 태조와 태종은 수릉터를 찾았으나 『國朝五禮儀』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릉을 준비하는 것이 예가 아니라 하여 이후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成宗實錄』 卷100 10年 1月 10日(丁卯) 및 1月 13日(庚午).

⁶⁵ 光海君이 생모 恭嬪 金氏의 무덤을 成陵으로 奉陵하면서 이전 능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봉분의 지름이 20척에서 40척까지로 차이가 났다. 『光海君日記』 卷39 3年 3月 24日(甲子).

⁶⁶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治葬 三十八, 四十三 및 四十四. 그런데 난간의 경우 한 면이 15척 3촌으로 너무 길어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원릉의 경우 3.6미터 즉 12척 정도이다.

⁶⁷ 김상협, 앞의 논문, p. 204, 206.

도 상통한다.⁶⁸ 따라서 봉분의 크기는 원래 비슷했지만 보존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났으며 이것이 후대에 혼란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봉분의 보수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구조상으로 그다지 견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봉분의 크기는 조선 후기에 다소 줄어들어 『國朝喪禮補編』에서는 능의 높이는 난간 下地臺石에서부터 9척이고 지름은 25척이라 규정하였다.⁶⁹ 이는 지름을 30척으로 하면 석물을 배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25척 이하로 하면 壙의 모퉁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⁷⁰ 英祖 이후 왕릉의 실측 수치는 병풍석이 있는 경우 높이 4미터 내외에 바닥 지름이 9.5미터 정도이고, 병풍석이 없는 경우는 높이 3미터 내외에 바닥 지름이 9-10미터 정도이다. 따라서 봉분의 크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國朝喪禮補編』에서 광의 깊이를 10척이라고 정해놓고서 “지형에 따라 맞도록 한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을 정도다.⁷¹ 예제에서 중시했던 것은 의례의 절차와 명분이었지 조형상의 모든 세부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왕릉은 고려처럼 石室을 묘실로 삼았다.⁷² 그러나 관습적인 석실의 사용이 예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었다. 1406년 석실을 쓰는 제도가 禮典에 없는 것이며 산 사람만 괴롭히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익하니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灰隔을 쓰도록 의정부에서 요청하자 태종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⁷³ 그러나 1408년 건원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書雲觀에서 인정을 고려하여 다시 석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⁷⁴ 결국 산릉 날짜가 임박했는데도 관습을 따라 석실을 사용하자는 주장과 예법에 의거하여 회격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대립하자 세자에게 명하여 종묘에 나아가 점을 쳐서 석실로 정하였다.⁷⁵ 당시로서는 석실을 사용하는 것과 회격을 쓰는 것에 있어서 가례의 준수와 경제적인 요인 및 선왕 예우의 명분 등이 서로 대등하여 어느 한 편으로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을 택했을

⁶⁸ 『英祖實錄』卷1 卽位年 10月 9日(己卯).

⁶⁹ 『國朝喪禮補編』卷1 治葬 五十四.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민속원, 2008)에 영인 수록된 규장각 소장 판본(奎3940)을 사용하였다.

⁷⁰ 『英祖實錄』卷1 卽位年 10月 9日(己卯).

⁷¹ 『國朝喪禮補編』卷1 治葬 五十二 “或隨地量宜.”

⁷² 이에 대해서는 김상협, 「조선초기 왕릉 석실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8호(2008. 8), pp. 179-186을 참조.

⁷³ 『太宗實錄』卷12 6年 閏7月 28日(乙酉) “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生人 無益死者 乞依 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⁷⁴ 『太宗實錄』卷16 8年 7月 9日(乙卯).

⁷⁵ 『太宗實錄』卷16 8年 7月 26日(壬申).

것이다.⁷⁶ 1410년 다시 사간원에서 『經濟六典』에 무덤의 제도를 정하지 않아서 석실, 석인 등을 많이 사용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규범을 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1418년 중친 이하의 장례에는 석실을 없애고 회격을 쓰라고 명하였다.⁷⁷ 그러나 定宗의 厚陵과 원경왕후와 태종의 獻陵은 계속하여 석실로 현궁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은 없었고 오히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⁷⁸ 1446년 세종비 昭憲王后가 승하하자 英陵에도 논의 끝에 석실을 사용했다.⁷⁹ 결국 태종과 세종대에 명분상으로는 석실 대신 회격을 묘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왕릉의 경우 관습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마침내 世祖가 자신의 능에 병풍석은 물론 석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睿宗은 유지를 받들어 세조의 光陵에 회격을 사용하였다.⁸⁰ 그 결과 무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役夫가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어들어 남는 인원을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⁸¹ 산릉 조성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돌을 옮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1469년에 세종의 영릉을 천장할 때도 세조의 유지를 따라 회격으로 만들었다.⁸² 이렇게 한 번 석실에서 회격으로 바뀐 왕릉 묘실제도는 예법에 합당한 것이었고 물력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왕릉에서 석실을 회격으로 바꾼 것은 가례의 규정을 제대로 따른 것이므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이 왕릉의 외형에는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西周시기에 이미 “天子棺槨七重”으로 3槨4棺 형식이 성립되었고, 西漢 때 목재로 여러 겹의 관곽을 만드는 ‘黃腸題奏’이, 東漢 때 博築墓가 발달한다. 唐代에 비로소 전·중·후실의 三室墓 형식의 地宮이 등장하여 이후 청대까지 이어진다.⁸³ 明十三陵의 定

76 태종이 한양을 도성으로 결정한 방법도 운관의 풍수설과 유학자들의 경전에 따른 주장이 아니라 讖緯이라는 것이었던 점에서 흥미롭다. 이욱, 「조선전기 한양 천도(遷都)와 풍수설」, 『중요문화비평』 10호(2006), pp. 91-123.

77 『太宗實錄』 卷19 10年 4月 8日(甲辰) 및 卷35 18年 1月 11日(壬戌).

78 『世宗實錄』 卷7 2年 1月 3日(壬寅), 卷9 2年 9月 16日(辛巳) 및 卷17 4年 9月 6日(庚申). 석실의 축조에 대해서는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pp. 130-14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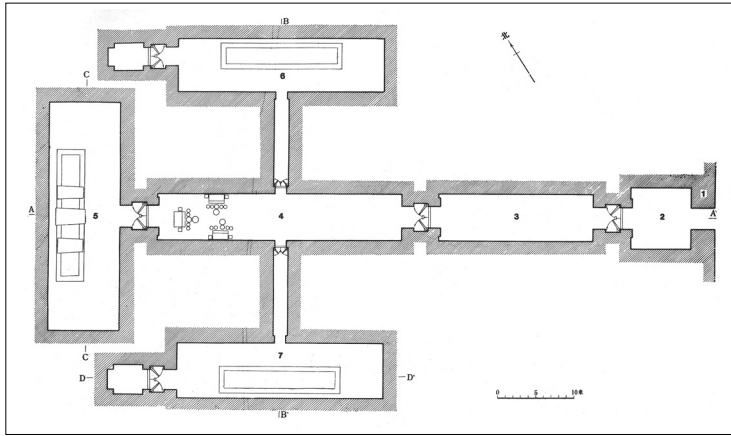
79 『世宗實錄』 卷112 28年 4月 3日(庚子), 5月 13日(庚辰) 및 7月 19日(乙酉).

80 『睿宗實錄』 卷1 卽位年 9月 17日(癸酉). “太上王遺命曰 死欲速朽 勿設石室石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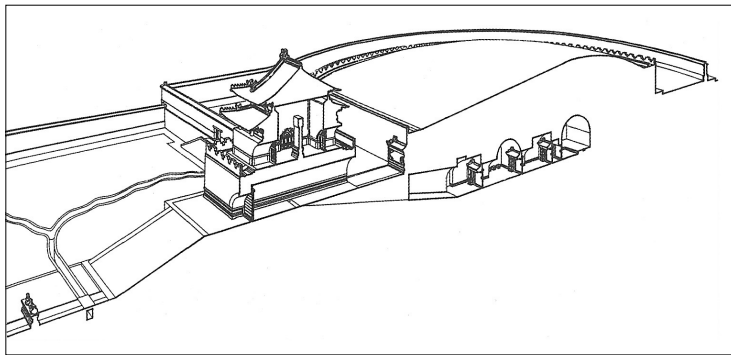
81 『睿宗實錄』 卷1 卽位年 9月 23日(己卯).

82 『睿宗實錄』 卷3 1年 1月 3日(戊午). 그동안 세종 영릉의 초장지(舊英陵)로 알려진 대모산 아래 현릉의 우측 지역을 최근에 다시 발굴했다. 그 결과 회격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석실을 사용한 영릉터가 될 수는 없고 1515년에 만든 중종계비 장경왕후의 嬪陵터로 추정된다.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英陵) 석물 연구」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종대왕 초장지(舊英陵) 지표 및 발굴조사-지도위원회자료-』(2008) 참조.

83 董新林, 『中國古代陵墓考古研究』(福建人民出版社 2005).



도13 明定陵地宮圖解
(『定陵上』, P. 14)



도14 清裕陵地宮圖解
(徐廣源『清皇陵地宮親探記』, P. 48)

陵을 1956년부터 발굴한 결과 보정 하부에 위치한 地宮의 구조를 알 수 있었으며 각종 부장품도 발견되었다.⁸⁴ 지궁은 건물 구조를 재현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며 황제와 황후를 함께 합장하였다(도13). 清東陵의 건릉제 유릉 역시 거대한 지궁을 축조했는데, 보정의 형태가 원형과 타원형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궁의 구성도 이에 따라 다르다. 즉 전후로 길게 구성되며, 벽면에는 섬세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도14).⁸⁵ 명청대 황릉의 지궁은 기본적으로 현세의 화려한 생활을 최대한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으며 막대한 수량의 부장품을 넣었다.

⁸⁴ 『定陵上下』(文物出版社, 1990).

⁸⁵ 王其享, 「清代陵墓建築藝術概論」, 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分類全集 中國建築藝術全集 第9卷 清代陵墓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pp. 2-48.

조선 왕릉에도 초기에는 많은 수량의 부장품을 넣었지만,⁸⁶ 영조대부터는 사람 형상의 부장품을 일체 제외시키고 있다. 영조는 여러 기물들은 금속이 아닌 토기로 제작하고 나전 칠기 같은 사치품은 제한시켰다. 명기로 만든 소형 악기를 넣더라도 악시는 더 이상 넣지 말라고 당부했다.⁸⁷ 영조가 소략하게 제도를 일신한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례 행렬은 크게 하였던 것과는 대비된다.⁸⁸ 상복제도나 복상 기간, 의례 절차 등 드러나는 것은 매우 중시한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궁이나 명기는 그렇지 않았다.

IV. 맺음말

조선왕조가 50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왕릉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왕릉은 조선 왕실의 의례에 대한 태도를 잘 드러내주며, 복잡한 왕통계승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외형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주변의 자연환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인공적인 모양으로 봉토를 만들고 주위를 정리했다. 조선 왕릉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였던 조형물이다. 왕릉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상장례 및 제례의 실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다양한 형태로 축적되었다. 다시 말해서 왕릉은 불변의 성격을 지니지만, 왕릉에 대한 기억은 계속하여 생성되고 수정되며 변화하면서 추념의 항구적인 발원지가 된다.

조선 왕릉은 여러 면에서 명청 황릉과 다르다. 중국의 황릉은 송, 명, 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 왕릉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 宣祖가 중국처럼 왕릉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 왕릉은 풍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봉분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자주 遷葬하였다. 명청대의 황릉은 현실의 궁궐을 모방하여 거대한 규모로 복잡한 건축물을 세웠으며 시신이 묻히는 봉분보다는 계사가 행해지는 廡殿을 중시했다. 그러나 조선 왕릉은 부속 건축물이 적었고 봉분이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명청 황릉의 경우 외관에서

⁸⁶ 『世宗實錄』 「五禮儀」에 따르면 현궁에 안치되는 명기는 모두 81종 346개이며 이 중 30여 개가 도해로 수록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두산동아, 2005), p. 228.

⁸⁷ 『國朝喪禮補編』卷⁵ 受教下發¹⁷十七.

⁸⁸ 이육, 「조선 후기 제관(祭官) 차정(差定)의 갈등을 통해 본 국가 사전(祀典)의 변화」, 『종교연구』 제53집(2008), pp. 113-143.

두드러지는 것은 황색 유리기와가 덮인 건축물이며 나무까지 심어진 봉분은 이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왕릉은 멀리서도 정자각 위에 자리 잡은 봉분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다. 중국 황릉의 지하 구조는 생전의 화려한 생활을 재현하여 거대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부장품을 넣었다. 그러나 조선의 왕릉은 초기에 간단한 石室에서 더욱 검소한 灰隔으로 玄宮을 만들었고 부장품도 점차로 적은 수량을 넣었다.

조선시대 왕릉과 관련한 상장례에 대해서는 현재 40건이 남아있는 『山陵都監儀軌』를 참고할 수 있다.⁸⁹⁾ 의례는 상장례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였지만 정작 봉분이나 현궁의 제작과 형태에 대해서는 내용이 소략하다. 왕릉의 석조물의 경우에도 『國朝五禮儀』에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문석인은 높이 8척 3촌에 무석인은 높이 9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⁹⁰⁾ 그러나 문무석인은 크기나 양식에 있어서 통일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선 전반기에는 점차 커지다가 후반기에 다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왕릉이 엄격한 조형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알려준다. 이는 왕릉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준다.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정해진 법규와 관습을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이었고 의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변형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례와 상관없는 세부 요소들은 오히려 제한받지 않았다. 예제를 유지시키는 반복과 지속이 왕릉을 커다란 변화가 없는 조형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명청대 황릉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역할에 따라 규모와 형식이 바뀌는 중국 명청대 황릉과 달리, 조선의 왕릉은 과거의 고전적인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 결과 조선 왕릉은 예제의 측면이 훨씬 중요하였고, 조형적인 고려는 우선시되지 않았다. 형식을 바꾸지 않는 보수성이 오히려 왕릉을 왕릉답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능陵(Royal tombs), 왕릉(王陵 Royal tombs), 황릉(皇陵 Imperial tombs), 봉분(封墳 Burial mounds), 현궁(玄宮 Burial chamber), 산릉(山陵 Royal tombs)

▣ 투고일 2009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09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8일 ▣

⁸⁹⁾ 이법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韓國思想과 文化』 36집(2008), pp. 257-260.

⁹⁰⁾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治葬 四十五.

참고문헌

『國朝五禮義』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稱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호, 진단학회, 2008, pp. 111-139.

姜友邦,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대원사, 1999.

국립공주박물관, 『百濟 斯麻王』, 국립공주박물관, 2001.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 碩陵』, 2003.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 高麗王陵: 嘉陵, 坤陵, 陵內里石室墳』,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역사의 숲 조선왕릉』, 놀와,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김경숙, 「18세기 陵參奉 金斗璧의 관직생활과 王陵守護 - 『稗聞日記』를 중심으로」, 『奎章閣』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12, pp. 109-135.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김상협, 「조선초기 왕릉 석실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8호, 대한건축학회, 2008. 8, pp. 179-186.

김원용·안희준 공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김은선, 「17세기 인, 숙종기의 왕릉 조각」, 『講坐美術史』 31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8. 12, pp. 153-175.

金尹順, 「洪陵과 裕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 제21호, 미술사연구회, 2007, pp. 293-328.

김이순,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美術史學報』 31집, 한국미술사학회, 2008. 12, pp. 63-100.

김이순, 「세종대왕 구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봄, pp. 155-190.

김인철, 『고려무덤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2002; 백산자료원, 2003 재출간.

김환대, 『신리왕릉』, 한국학술정보, 2007.

-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韓國思想과 文化』 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pp. 257-260.
- 이예성, 「조선 후기의 왕릉도(王陵圖)」,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pp. 205-234.
- 이육, 「조선전기 한양 천도(遷都)와 풍수설」, 『종교문화비평』 10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6, pp. 91-123.
- 이육, 「조선후기 제관(祭官) 차정(差定)의 갈등을 통해 본 국가 사전(祀典)의 변화」, 『종교연구』 제53집, 한국종교학회, 2008, pp. 113-143.
- 李貞善, 「조선전기 왕릉 石人, 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희중, 「17, 1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제17호, 서울학연구소, 2001, pp. 1-55.
- ICOMOS,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 학술 연구』, 문화계청, 2007.
- 林玲愛,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講座美術史』 17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1, pp. 47-75.
- 장경희, 「고종황제 금곡 홍릉의 석조각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pp. 509-536.
- 장경희, 「고종황제의 금곡 홍릉 연구」, 『史叢』 64, 역사학연구회, 2007. 3, pp. 1-70.
-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08.
- 장은미·박경,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 위성영상분석과 지질, 지형분석의 방법으로」, 『한국 GIS학회지』 제14권 제3호, 한국GIS학회, 2006. 11, pp. 285-297.
- 鄭景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호, 서울학연구소, 2004, pp. 157-193.
- 정경희, 「조선후기 園所都監儀軌의 특징」,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p. 85-94.
- 朝鮮總督府 編, 『大正5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1917; 國書刊行會, 1964, 復刻本
- 來村多加史, 『唐代皇帝陵の研究』, 學生社, 2001.
- 董新林, 『中國古代陵墓考古研究』, 福建人民出版社, 2005.
- 宋大川·夏連保, 『清代園寢制度研究 上冊』, 文物出版社, 2007.
- 晏子有, 『清東西陵』, 中國青年出版社, 2000.
- 楊道明, 「中國陵墓建築概論」,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建築藝術編 2: 陵墓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1, pp. 12-14.
- 楊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1985.
- 王其享, 「明代陵墓建築藝術概論」, 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建築藝術全集 第7卷 明代陵墓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0, pp. 2-43.

- 王其亨,「清代陵墓建築藝術概論」,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編,『中國建築藝術全集 第8卷 清代陵墓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2003, pp. 2-48.
- 王其亨,「慕陵擬建方城明樓史實探蹟」,『故宮博物院院刊』總第129期,2007, pp. 6-13.
- 王麗梅,「朱厚熜帝系獨立意識在陵寢建造中的反映」,『故宮博物院院刊』總第129期,2007, pp. 14-23.
- 王煥鑣撰,『明孝陵志』,南京出版社,2006.
- 劉毅,『明代帝王陵墓制度研究』,人民出版社,2006.
- 陳朝云,『南北宋陵』,中國青年出版社,2004.
- 『定陵 上,下』,文物出版社,1990.
- Wang, Cheng-hua. "Material Culture and Emperors: The Shaping of Imperial Roles at the Court of Xuanzong (r. 1426-35)," Ph. D. diss. Yale University, 1998.

조선시대에는 왕족의 시신을 매장하는 거대한 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왕과 왕비의 무덤을 陵이라 하였다. 불교를 숭상하였던 신라나 고려의 왕릉과는 달리 조선의 왕릉은 유교의 영향으로 禮制的 의미가 중요했다. 왕릉의 형식은 조선 초에 이미 고전적인 전통이 확립되었고, 후대에도 이것을 따랐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왕릉은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외형과 간단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성과 지속성은 古禮를 중시하는 유교 의례를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다. 조선시대의 왕릉의 외형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가 많았다. 봉분의 배치 형식이나 크기, 석조물의 양식과 크기는 정해진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왕릉의 상고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예제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중국 명청대의 황릉과 비교 검토한다.

중국의 황릉은 송, 명, 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宣祖는 중국처럼 왕릉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 왕릉은 풍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봉분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자주 遷葬하였다. 명청대의 황릉은 현실의 궁궐을 모방하여 거대한 규모로 복잡한 건축물을 세웠으며 시신이 묻히는 봉분보다는 제사가 행해지는 廡殿을 중시했다. 그러나 조선 왕릉은 부속 건축물이 적었고 봉분이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중국 황릉의 지하 구조는 생전의 화려한 생활을 재현하여 거대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부장품을 넣었다. 그러나 조선의 왕릉은 초기에 간단한 石室에서 더욱 검소한 灰隔으로 玄宮을 만들었고 부장품도 적은 수량을 넣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외형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주변의 자연환경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인공적인 구조이다. 조선시대 왕릉과 관련한 상장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있지만 정작 봉분이나 현궁의 제작과 형식에 대해서는 기록이 희소하다.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정해진 법규와 관습을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이었고 의례에 어긋나는 변형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의례와 상관없는 변화인 경우는 오히려 제한받지 않았다. 예제를 유지시키는 반복과 지속이 왕릉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기념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명청대 황릉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역할에 따라 규모와 형식이 바뀌는 중국의 황릉과 달리, 조선의 왕릉은 과거의 고전적인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 결과 조선 왕릉은 예제의 측면이 훨씬 중요하였고, 조형적인 고려는 우선시되지 않았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and 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Cho Insoo*

Decreased Joseon royals were buried in large tombs. Tumuli belonging to kings and queen consorts were distinguished from those belonging to other members of the royal house by designating them with a separate name, *reung*. What sets apart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ose of the two preceding Buddhist dynasties of Silla and Goryeo is the strong influence of Confucian funerary rites. Royal tombs of Joseon appeared with classical style, already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and remained consistent with early prototypes throughout the end of the dynasty. Few radical changes, in other words, occurred over the centuries to Joseon royal tombs, which are characteristically simple in appearance as well as construction style. These conservative and steadfast qualities were the result of the unwavering adherence to Confucian funeral rites. Notwithstanding, behind the constant external appearance, Joseon royal tombs, nevertheless, did undergo numerous changes concerning more minor details.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urial mound and its size, or the style and size of stone objects and monuments did not obey set norms. This study is a comparison of royal tombs of Joseon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aspects of Confucian burial customs and examining the changes that occurred within this seemingly static tradition of

*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urial architecture.

Chinese imperial mausoleums are most often clustered into groups. This is the case with the Song, Ming as well as Qing-dynasty tombs. Having a tomb park where royal burial mounds would be gathered together, like in China, was an idea that interested Joseon king Seonjo, who ultimately did not succeed in finding a suitable site for it.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location of royal tombs, is partly explained by the fact that in Joseon, they were frequently moved to new locations, often out of geomantic considerations, but also because of structural weaknesses. Chinese imperial tombs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often gigantic and complex structures, built in the image of palaces. In a Chinese tomb, the shrine where memorial services were held was as important as the burial mound housing the actual remains of the deceased. Contrary to their Chinese counterparts, Joseon royal tombs had few annex buildings, and the burial mound continued to remain the centerpiece of a graveyard. The underground structure of a Chinese imperial tombs tends to be also quite impressive in size and lavish in architecture as it most often reproduces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deceased while he was alive. A massive array of burial goods was placed there as well. In stark contrast to the Chinese practice, the substructure of a Joseon royal tombs consisted of a fairly simple stone chamber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and a yet simpler burial pit filled with lime during the later part of the dynasty.

In Joseon, royal tombs were considered monuments and were accordingly managed by the state. Although quite plain and unpretentious in their exterior appearance, Joseon royal tombs were unmistakably manmade edifices, visibly distinct from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lthough there is an extensive body of records documenting funerary customs of the Joseon royal house, sources on the layout and architecture of burial structures, such as the burial mound and chamber, are comparatively scarce. At any rate, Joseon royal tombs had to adhere to existing regulations and ritual manuals, concerning their general appearance, which were quite strictly followed. Variations were allowed only with regard to certain minor aspects for which there was no pre-existing rule. This demand for conformity explains the surprising stylistic constancy among Joseon royal tombs over the centuries. This steadfast adherence to tradition is precisely what separates Joseon royal tombs from the imperial tombs of the Chinese Dynasties of Ming and Qing foremost. In China, burial edifices of its rulers changed in size and style, in time as well as

according to their evolving role in the political life in the country. Royal tombs of Joseon, on the other hand, followed ancient precedents, introducing few significant modifications. As a result, this dynasty produced a royal tomb culture which largely neglected aesthetic concerns in favor of ethical and ritualistic considerations.